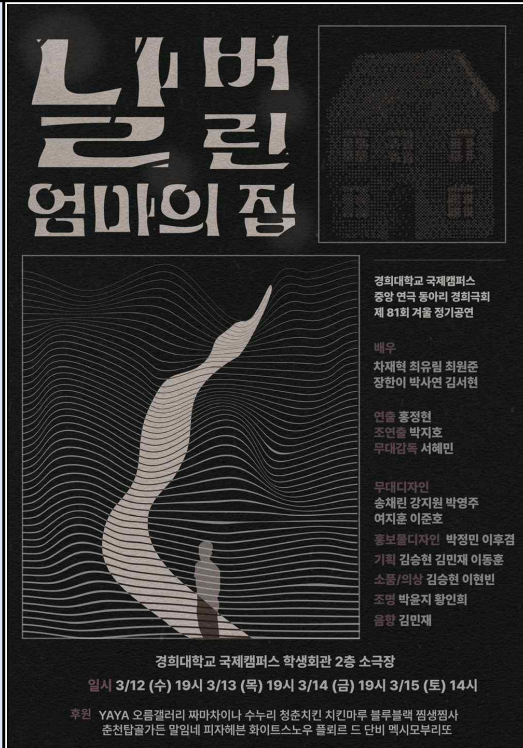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81회 정기공연 <날 버린 엄마의 집>		
동아리 분과	연행분과	동아리명	경희극회
활동시간	2025.03.12. ~ 2025.03.15	비고	
활동목적	대학인으로서 선진적인 형식상의 다변화와 실험 정신을 가진 연극 전반활동을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회관 2층 소극장</p> <p>활동내용 : 81번째 정기공연을 맞아 <날 버린 엄마의 집> 작품을 대본으로 선정하고, 약 2개월간 본격적인 공연 준비를 진행하였다. 본 작품은 가족이라는 집단 안에 얽힌 상처와 용서, 그리고 인간 내면의 고통을 섬세하게 그려낸 현대극으로, 현실과 상징을 넘나드는 구성과 밀도 높은 심리 묘사가 특징이다.</p> <p>이번 활동은 대본 리딩을 시작으로 한 전체 연습, 캐릭터 분석 및 감정 훈련, 무대와 소품 제작, 조명 및 음향 디자인, 홍보 콘텐츠 기획과 관객 유치 등 전 분야에 걸쳐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배우진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주5일 5시간씩 연습에 매진하며 인물의 감정선을 깊이 있게 표현하는 데 집중했고, 연출부는 작품의 방향성과 무대의 구성 등 조율하며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었다. 무대팀은 극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공간 구성을 위해 회의와 기획을 반복했고, 조명·음향팀은 장면별 감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술적 세부사항을 조정하며 완성도를 높였다. 홍보팀은 SNS, 포스터, 캠퍼스 내 홍보물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객 유치에 힘썼다. 공연 전 전체 리허설과 피드백을 통해 객관적인 점검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4일간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하루 평균 100여 명의 관객이 방문하여 공연을 관람하였다. 주요 관람층은 학내 구성원이었으며, 무대예술에 관심이 있거나 연극 공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타 학교 연극동아리 구성원들 또한 방문하였다.</p> <p>소감 : 이번 81회 정기공연은 단순한 한 편의 무대를 넘어서, 동아리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호흡하고 성장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각자의 역할은 달랐지만, 공연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가며 서로의 노고를 인정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p> <p>공연 당일, 무대 위에 올라간 배우들의 진심 어린 연기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 스태프의 노력이 어우러져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과 감동을 이끌어냈다. 특히, 가족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깊이 있게 풀어낸 이번 공연은 관객들에게 많은 여운을 남겼다는 평을 받았으며, 우리 동아리에게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p> <p>이번 활동을 통해 구성원 모두는 단순한 연극 제작 기술뿐만 아니라 협업, 소통, 시간 관리, 창작 과정의 중요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배움을 얻었다. 예기치 못한 문제들 속에서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안을 모색해가며 공연을 완성해낸 경험은 동아리 전체에 깊은 의미로 남았다. 공연 이후 진행된 관객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매해 공연의 퀄리티가 상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누적 조회수 47만의 대학 연극 전문 블로거의 리뷰글에서는 열악한</p>		

시설 조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경희극회의 객관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활동사진
(3매 이상)



연습 사진

포스터



무대 설치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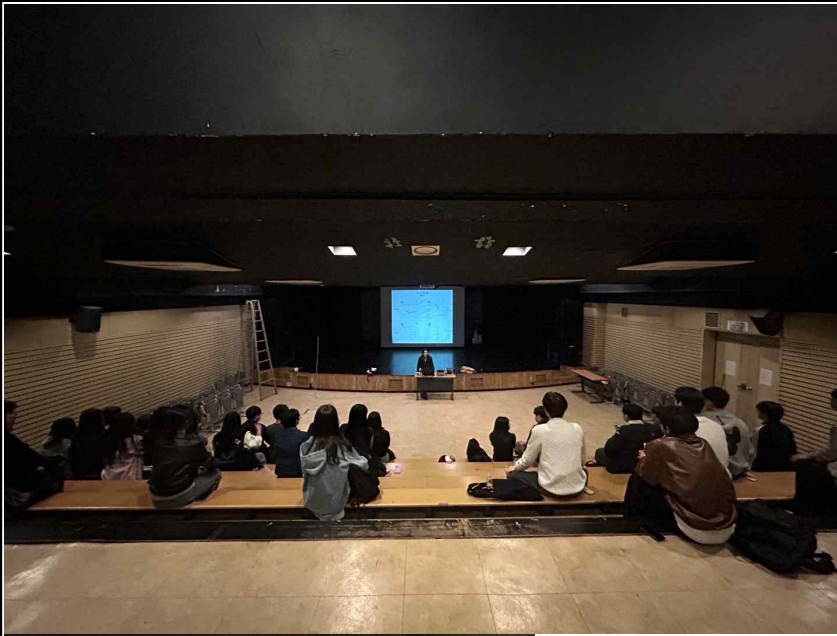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차재혁 (인)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신입부원 오디션, 개강총회		
동아리 분과	연행분과	동아리명	경희극회
활동시간	2025.03.19. ~ 2025.03.20.	비고	
활동목적	대학인으로서 선진적인 형식상의 다변화와 실험 정신을 가진 연극 전반활동을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회관 2층 소극장</p> <p>활동내용 : 경희극회는 2025년 1학기 신입 부원 모집을 위해 개강 초 오디션을 진행하였다. 연극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가진 학우들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진행했으며, 포스터, SNS 공지, 동아리박람회 등을 활용하여 폭넓은 참여를 유도했다. 오디션은 자기소개 및 연극 관련 경험 공유, 지정 독백대사, 2인극 대사의 세 파트로 구성되었다. 지원자들의 개성과 잠재력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며, 경력보다는 태도와 열정, 협업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오디션 심사는 기존 부원들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오디션 후 합격자 발표를 통해 약 25명의 신입부원이 선발되었고, 이후 개강총회를 열어 동아리의 활동 방향과 연간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정기공연 일정, 부서 소개, 부원 간 자기소개, 선후배 간 네트워킹 활동 등이 진행되었고, 이후 친목을 위한 소규모 뒤풀이 자리도 마련되었다.</p> <p>소감 : 이번 오디션을 통해 많은 신입생들이 연극에 대한 관심과 도전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연기 경험이 없더라도 무대에 대한 열정을 자신 있게 표현하는 모습들이 인상 깊었고, 동아리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점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개강총회는 기존 부원과 신입 부원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서로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모습이 돋보였고, 이후 진행될 연습과 공연에 있어서 좋은 팀워크의 기반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선배 부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후배들을 자연스럽게 이끌어주는 모습은 경희극회만의 따뜻한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동아리 특성상 협업이 중요한 만큼, 이러한 첫 만남의 분위기가 공연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p> <p>기타 및 향후 계획 : 신입부원 오디션과 개강총회를 마무리한 후, 본격적인 공연 준비에 앞서 워크숍, 발성/호흡 훈련, 연기 기초 트레이닝 등 신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부원과 신입 부원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팀별 활동 등을 추진 중이다. 이번 학기에는 단순한 공연 참여를 넘어, 함께 연극을 만드는 과정에서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신입 부원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고, 자기만의 색깔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소통과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p>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차재혁 (인)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경희극회 춘계 총애티		
동아리 분과	연행분과	동아리명	경희극회
활동시간	2025.04.06. ~ 2025.04.07.	비고	
활동목적	대학인으로서 선진적인 형식상의 다변화와 실험 정신을 가진 연극 전반활동을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죽양대로2071번길 에코그린타운 펜션</p> <p>활동내용 : 경희극회는 2025년 1학기 활동의 결속력을 다지고, 신입 부원들과의 교류 및 예술적 소통을 위해 1박 2일간 총애티를 다녀왔다. 단순한 친목을 넘어서, 연극을 주제로 한 진지한 대화와 나눔이 중심이 된 애티였다. 기존 부원들과 신입 부원이 각자 좋아하는 연극 작품이나 인상 깊었던 무대 경험, 연기 고민 등을 편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실제 공연을 하며 느낀 압박감, 무대 위 실수, 극복 방법 등도 자유롭게 공유되었다.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즉흥 연기 워크숍을 진행해 준비 없이 던져지는 상황 설정에 따라 신입과 기존 부원이 짝을 이루어 짧은 즉흥극을 만들어 발표하였다. 상황에 몰입하고, 감정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훈련이자, 서로의 창의성과 반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나는 무대에서 왜 두려운가", "감정을 진정으로 느끼는 순간이란?", "연극을 계속하고 싶은 이유는?" 등의 주제로 돌아가며 진지한 이야기 나누었다. 선배 부원들이 초보 시절 느낀 부담과 실수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주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극의 정의, 동시대 연극의 역할, 관객과의 거리, 대학극의 한계와 가능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였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연극에 대한 깊은 시각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외에도 조별 게임, 요리 대결, 캠프파이어 등 즐거운 활동도 함께 진행되어, 동아리원 간의 유대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p> <p>소감 : 이번 총애티는 단순한 MT를 넘어서, 경희극회 구성원들이 '연극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되물고, 타인의 생각을 듣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평소 연습실이나 공연 준비 과정에서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던 만큼, 이틀간의 시간은 각자의 연극 철학을 공유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p> <p>무대 위에서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통'과 '공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실감했고, 배우뿐 아니라 무대, 조명, 연출 등 각 파트의 고민도 함께 나누며 팀워크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p> <p>특히, 신입 부원들의 신선한 시각과 질문은 기존 부원들에게도 많은 자극이 되었고, 동아리의 방향성과 분위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선배 부원들의 진심 어린 조언과 과거 경험 공유는 후배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는 피드백도 많았다.</p>		
활동사진 (3매 이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차재혁 (인)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신입생 워크숍 공연 <헤더웨이 집의 유령>		
동아리 분과	연행분과	동아리명	경희극회
활동시간	2025.05.29. ~ 2025.05.31.	비고	
활동목적	대학인으로서 선진적인 형식상의 다변화와 실험 정신을 가진 연극 전반활동을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회관 2층 소극장</p> <p>활동내용 : 2025년 1학기 경희극회는 신입 부원들을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의 마무리 단계로 연극 공연을 기획·진행하였다. 이번 워크숍 공연은 단순한 발표가 아닌, 신입 부원들이 실전 무대를 경험하고, 연극 제작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적 목적을 가진 프로젝트였다.</p> <p>- 기획 의도 신입 부원들이 짧은 시간 동안 배운 연극 기초를 실전에 옮기고, 직접 하나의 공연을 만들어가며 실질적인 경험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동시에 “누구든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경희극회의 전통과 철학을 계승하는 행사로 기획되었다.</p> <p>- 준비 과정 작품 선정 : 신입 부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기/무대 구성/공감 요소를 고려한 희곡 선정 역할 배정 : 전 배역을 신입 부원이 맡고, 일부 연출·조명·무대 파트도 신입 부원 주도 기초 훈련 : 발성, 호흡, 발음, 신체 훈련, 감정 표현 등 연기 기초 훈련 진행. 부서별 기초 이론 교육(무대/조명/연출 등)도 함께 운영. 연습: 2달간 매주 2-3회 연습 진행, 리딩 - 감정 훈련 - 블로킹 - 런스루 - 리허설까지 전 단계 소화 기술 제작: 기존 부원이 무대·조명·음향 등 서포트 역할을 맡아 실무 교육과 병행 홍보 및 운영: 자체 포스터 제작, SNS 및 교내 홍보 진행, 객석 오픈 공연으로 관객 유치 공연: 당일 객석 오픈, 조명과 음향, 무대 장치까지 갖춘 형태로 4회 공연 진행</p> <p>소감 : 이번 워크숍 공연은 신입 부원들에게 무대를 경험하게 해주는 첫 번째 기회였다. 많은 신입들이 처음엔 무대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을 안고 있었지만, 연습과 피드백을 거듭하며 점차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특히, 직접 연기하고 움직이며 무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연극의 매력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고, 이 과정이 단순한 학습을 넘어서 신입 부원 각자의 연극적 시각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무대를 올리기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팀원 간의 협력, 선배 부원들의 조언, 자발적인 참여 덕분에 공연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공연이 끝난 뒤 신입 부원들의 표정에서 큰 성취감과 감동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워크숍은 단지 연기를 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연극이라는 공동 작업이 얼마나 치밀하고 협력적인 예술인지를 몸소 체험한 시간이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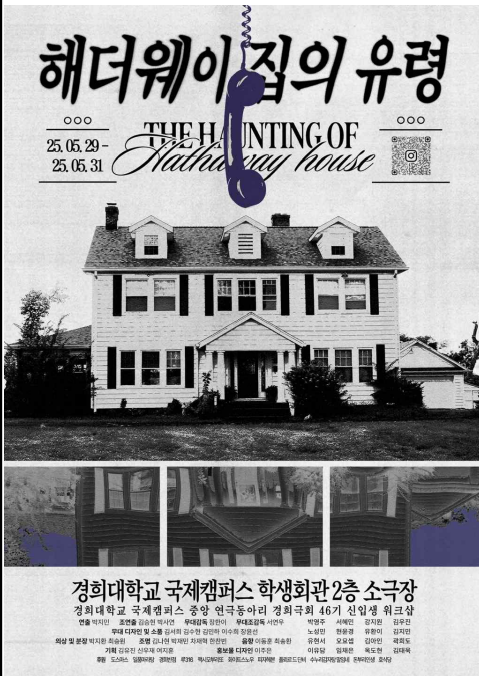


리허설



연습

활동사진
(3매 이상)



포스터



본공연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차재혁 (인)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여름 공연 준비 : <3cm>, <완벽한 타인>		
동아리 분과	연행분과	동아리명	경희극회
활동시간	2025.07.01. ~ 현재	비고	
활동목적	대학인으로서 선진적인 형식상의 다변화와 실험 정신을 가진 연극 전반활동을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회관 2층 소극장</p> <p>활동내용 : 경희극회는 현재 2025년 여름공연을 목표로 두 작품의 공연을 동시 준비 중이며, 전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기획부터 무대 제작, 연습, 홍보까지 공연 전반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및 기획 구성 <p>두 작품 각각 연출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였고, 배우, 무대, 조명, 음향, 기획, 홍보 등 세부 파트별로 책임자를 정해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 주 1회 전체 회의를 통해 각 파트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 및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습 및 제작 과정 <p>정기 연습을 주 5회로 운영 중이며, 장면 구성, 동선 연습, 감정선 구축, 템포 훈련 등 세부적인 훈련 병행하고 있다. 무대 도면과 구조 시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필요한 자재 목록과 예산안이 작성된 상태이다. 조명 및 음향 파트는 장면별 큐 구성을 시작하고, 리허설 스케줄에 맞춰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다. 기획 파트는 학교 인근 식당, 술집 등을 방문해 공연을 홍보하고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 부원 교육 <p>신입 부원들은 각 파트에 실무로 참여하며 실질적인 경험을 쌓고 있고, 일부는 연출보조나 기술보조 역할까지 맡아 실전에 가까운 활동을 수행 중이다. 기존 부원은 멘토 역할과 실무 책임을 동시에 수행하며,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p> <p>소감 : 이번 여름공연 준비는 단순한 연극 제작을 넘어, 동아리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움직이며 하나의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였다. 두 개의 공연을 병행 준비하면서 동아리원들은 더 깊은 협업과 소통이 필요했고, 각자의 책임감도 자연스럽게 커졌다. 공연을 준비하면서 매일의 연습과 회의, 각 파트 간의 논의와 시행착오를 겪으며 동아리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중이다. 신입 부원들은 빠른 시간 안에 동아리의 핵심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감을 얻고 있고, 기존 부원들은 후배들과 함께 준비하며 동아리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되짚는 시간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모두가 자발적이고 진지한 태도로 준비에 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아리의 분위기와 에너지가 매우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p> <p>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며, 두 작품 모두가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완성도 높게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준비의 과정이 힘들수록, 공연 당일 느끼게 될 보람과 성취도 더 크게 다가올 것이라 믿는다.</p> <p>향후 계획 : 남은 준비 기간 동안 경희극회는 다음과 같은 일정을 중심으로 공연을 완성해나갈</p>		

예정이다.

7월 말 : 전체 연습 진도 80% 이상 확보 / 무대 도면 확정 / 소품 제작 시작

8월 초 : 무대 설치 및 기술 리허설 진입 / 조명·음향 큐 확정 / 배우 런스루 집중

8월 중순 : 최종 리허설(드라이 런 / 테크 런 / 드레스 리허설 등)

9월 3일 ~ 9월 6일 : <3cm> 본공연, 관객 피드백 수집

9월 11일 ~ 9월 13일 : <완벽한 타인> 본공연, 관객 피드백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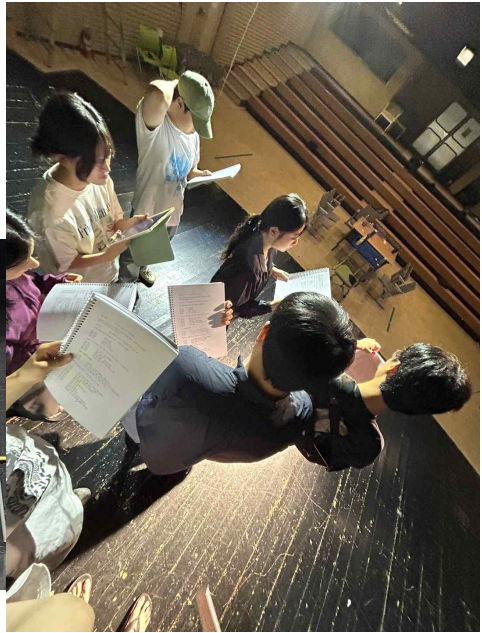
공연 후: 내부 피드백 및 정리 회의, 평가서 작성, 자료 정리

현재 동아리 구성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공연을 준비 중이며, 완성도 높은 무대를 통해 그간의 노력과 성장을 관객 앞에 증명해 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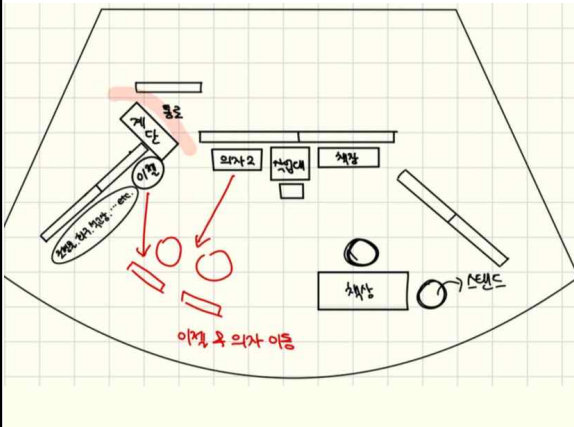
활동사진
(3매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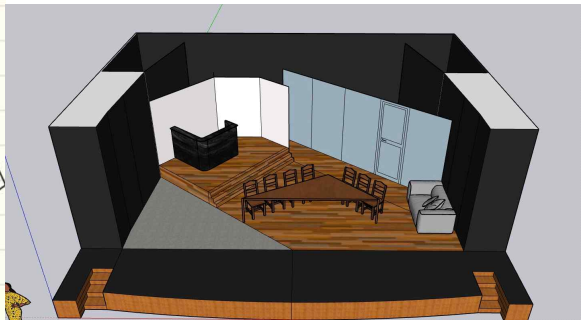
<3cm> 연습 사진



<완벽한 타인> 연습 사진



<3cm> 무대 시안



<완벽한 타인> 무대 시안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차재혁 (인)

동아리 활동보고서

활동명	제2회 대학 극회 연합 무대 컨퍼런스 <빛, 소리 그리고 이야기>		
동아리 분과	연행분과	동아리명	경희극회
활동시간	2025.07.22.	비고	
활동목적	대학인으로서 선진적인 형식상의 다변화와 실험 정신을 가진 연극 전반활동을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활동내용 및 소감	<p>장소: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8길 5-4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p> <p>활동 내용 :</p> <p>1부 단체별 발표 - 공연을 만드는 무대, 조명, 음향 기술</p> <p>2부 네트워킹 부스존 - 소통의 장, 함께 나누는 아이디어</p> <p>경희극회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공연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조명 프로그램 MA2와 소품 및 무대 제작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조명-음향-무대 간 협업의 실제 사례, 학생 단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오류와 해결 방안, 내부 오퍼레이션 시스템 등에 대한 타 학교 극회의 발표 또한 진행되었다.</p> <p>소감 :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히 연극 기술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연극을 만들어가는 대학 극회들이 무대를 향한 고민과 애정을 나누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아리가 무대 작업을 어떻게 해왔는지 정리해볼 수 있었고, 같은 고민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낸 타 극회의 발표를 들으며, 새로운 시도와 구조를 떠올릴 수 있었다. 무대 세팅 시 자주 겪는 실수, QLab과 MA2 콘솔의 병행 활용법, 단체 소속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툴(예: Trello, Notion 등) 활용 방식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았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점은, 모두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연극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공통점이었다. 비슷한 한계와 조건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무대를 완성해가는 모습은 경희극회에게도 큰 자극과 영감이 되었다.</p>		

2부 부스 시간표

1조
건국대학교 소솔
서울시립대학교 극예술연구회

2조
경희대학교 경희극회
연세대학교 외솔극회

3조
성균관대학교 농라촌
광주과학기술원 지대로

4조
인하대학교 인하극예술연구회
한양대학교 삶판

5조
가천대학교 아름
전남대학교 전대극회
가톨릭대학교 성심극예술연구회

6조
단국대학교 극예술연구회
동국대학교 동국연극회

7조
홍익대학교 시네시아
광운대학교 광운극예술연구회

8조
홍익대학교 홍익극예술연구회
경기대학교 나루극예술연구회
건국대학교 한울 건국극회

9조
공주대학교 동선
중앙대학교 영죽무대
경원대학교 월린무대

10조
한성대학교 낙산극회
한양대학교 무대 밖의 뿔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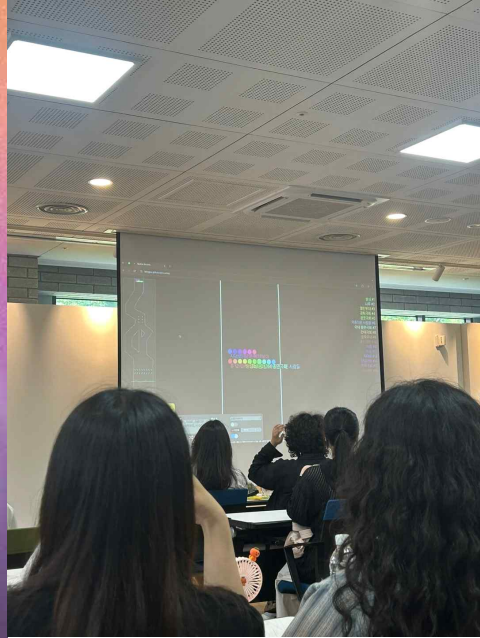
11조
남서울대학교 아름다운 사람들
이화여자대학교 총연극회
협성대학교 띠앗

참여 단체 목록

활동사진 (3매 이상)



포스터



행사 사진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차재혁 (인)